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콘스탄틴 뫼니에, <돌아온 탕자> 1892, 부다페스트 예술박물관, 헝가리

† 오늘의 전례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 15,1-32 참조)

백 마리 양떼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아흔 아홉 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아해 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주님께는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염둥이입니다.

제1독서 탈출 32,7-11,13-14

제2독서 티모 1,12-17

복음 루카 15,1-32

입당송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화답송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회개(悔改), 하느님의 기쁨

김영덕 루카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는 두 살 터울 동생과 자주 다투며 자랐습니다. 하루는 그만 동생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부모님이 온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해가 기울도록 동생을 찾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는 어찌할 줄 몰라 연신 담배를 피워 댔습니다. 어린 저도 걱정이 되어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 동생 좀 찾아주세요.' 그 때 마침 안방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동생은 장롱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혼자 숨바꼭질을 했더니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께 빗자루 몽둥이로 혼나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며 웃음과 눈물, 기쁨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날 동생의 소중함을 새로이 깨닫게 되었고 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타는 사랑과 기다림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 힘을 씁니다. 더구나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애타게 찾고 돌아오길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오늘 복음은 어린양 한 마리를 찾아 해매는 목자의 모습과 잃은 은전을 찾고 기뻐하는 부인의 비유를 통해 자녀인 우리를 하나하나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은 죄로 당신과 멀어지고 교회를 벗어나 있는 형제들을 포기하거나 처벌하려 하지 않고 끝없는 사랑으로 다시 찾고자 하신다는 것이지요.

사실 목자를 잃은 양은 자유롭다기보다 오히려 온갖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목자의 보호 안에서 가졌던 평화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주인의 손을 떠난 은전도 그 값어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지요. 아무리 값나가는 은전이라도 장롱 밑에 처박혀 있거나 땅에 떨어져 묻혀 있으면 그 가치는 그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신앙인인 우리들도 복음의 양들처럼 신앙공동체와 목자의 보살핌 속에 있을 때, 주님의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주인의 손에 있는 은전처럼 하느님의 손에서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그 달란트를 주님 뜻에 맞게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장롱속의 제 어린 동생처럼 하느님께 마음의 문을 닫고 신앙공동체로부터 잠시 숨어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미사에는 참여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잃은 채 나의 뜻대로만 세상을 살거나 반복되는 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속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나)를 사랑하시고 찾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주님과 신앙공동체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悔改)의 한걸음을 떼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잃은 자녀를 되찾은 아버지처럼 기쁘게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루카 15,10) **말씀**



성체를 합당한 공경으로 영하기 위해 해야 할 준비가 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양심을 돌아보고 지은 죄가 있으면 고해하여 사죄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체를 모시기 한 시간 전부터 약이나 물을 제외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준비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신앙의 해 교리 퀴즈 ②1



신앙의 해 특집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가르침②

우리는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문화홍보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체를 일관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란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상 바로 우리 신자들이 교회이니까 이 질문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누구이며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인 셈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하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보편 공의회가 있었지만, 이전 공의회들은 주로 교리상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교회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특별한 문제 상황을 다루기보다는 교회 본연의 모습, 바로 교회 자신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래 무엇 때문에 신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은총을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면 위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친교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께 가까이 가고 당신과 자녀로서, 벗으로서 친하게 사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친하게 사귀는 관계 안으로 초대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자 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위해, 또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교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외톨이로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가 하느님과 나누는 친교는 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친교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는 바로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인데, 성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도 한 몸을 이루고 또 예수님 몸에 연결되어 있는 무수한 다른 신자들과도 한 몸을 이룹니다. 개인적인 신앙, 혼자 열심히 신심생활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전수되고 또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과 우리가 나누는 친교는 산위에 자리 잡은 고올이 감추어질 수 없듯이 (마태 5,14 참조) 저절로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교에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빛 무리가 점점 늘어나고 마침내 온 세상에 확산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자 된 사람의 본분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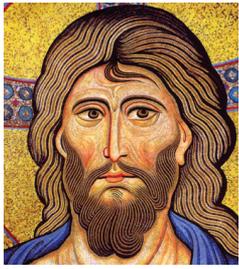


“중한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 이 성사를 받기 위한 적절한 준비로 신자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정한 ()를 지켜야 한다. 몸가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님이 되시는 그 순간에 걸맞은 존경과 정중함과 기쁨을 나타내야 한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385, 1387항)

이 코너를 오래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늘에 올라

문화홍보실



주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시어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후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승천(昇天)이라

하는데, 우리 곁을 아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를 벗어나신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입을 영광을 미리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오르신 하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늘, 예수님께서서 올라가신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비행기나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장소에 계셔야 했고 시간의 변화를 겪으셔야 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 오시고,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승천은 예수님께서서 어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서 본래 누리시던 하늘나라의 영광에 다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다

신경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서 삼위일체의 영광을 다시 입으신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서 천상천하의 모든 권능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뜻합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다니 7.14)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어느 곳에서든, 어느 시대에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에는 모든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실 수 없었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지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거룩한 성사와 전례에 참여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성체 안에 현존하십니다. 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살필 때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뽑으시고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우리를 앞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멩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도들을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11) **필문**



그를 위해 피를 흘린 것은 네가 아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멜리데(Melide)라는 작은 성당에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는 예수님의 오른팔이 못에서 빠진 채 밑으로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옛날에 이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신자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 뒤, 고해소에 들어가 신부님께 모든 죄를 눈물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사제는 그에게 사죄경을 외워주면서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얼마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결심을 하지만 돌아서면 죄를 짓고 마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똑같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럴 때 마다 신부님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은 매번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고백하는 이 신자의 뉘우침

에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용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오른손을 못에서 빼내서 그 신자에게 직접 구원의 표지인 십자가를 그어주시고는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 피를 흘린 것은 네가 아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단죄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신데,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필독**

금주의 성인



성 고르벨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9월 16일)

3세기 중엽 로마 박해시대에 교회의 분열을 수습하고 일치를 위해 힘을 모으신 고르벨리오 성인과 치프리아노 성인께서는 이단에 맞서 교회의 정통성과 단일성을 수호하셨다. 251년에 교황으로 선출된 고르벨리오 성인께서는 박해로 교회를 떠났던 신자들을 다시 받아들여 이시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다가 유배 중에 선종하셨으며 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이신 치프리아노 성인께서는 고르벨리오 성

인을 도와 교회 재건에 전력을 다하시다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셨는데 아프리카 교회의 대표적인 교부로 라틴문학의 선구자라 불릴 만큼 뛰어난 저술을 남기셨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9월 20일 금요일은 (故) 서인석 바오로 신부님 선종 8주기입니다.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치매·중풍 전문 클리닉

“**논공가톨릭병원이**
성요셉요양병원으로
새롭게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병원장 장효원(요셉) 신부입니다.

성요셉요양병원은 친환경적 병실과 24시간 의료진, 전문 간병인이 상주하는 노인성 질환 케어전문 요양 병원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진료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 전화 _ 053) 615-4871~3 | <http://www.ngch.co.kr>

■ 영성사진 콘테스트 7월 수상작 시상



영성사진 콘테스트 7월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8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교구청 문화홍보실에서 열렸다. 최우수상 이도협(스테파노, 죽도성당) 형제, 우수상 이지호(헬레나, 원평성당) 자매, 장려상 조성호(라파엘, 장성성당) 형제에게 각각 상금과 기념 액자가 수여 되었다.

■ 순교자 현양미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9월 7일(토) 오후 5시 관덕정순교기념관에서 순교자 현양미사를 봉헌하셨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빛)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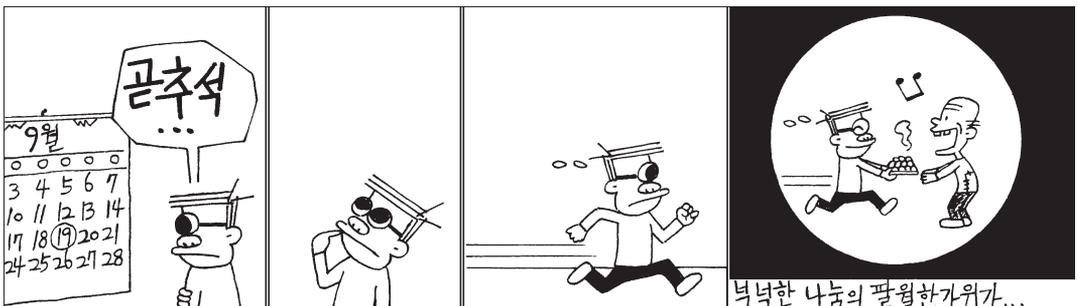
연중 제22주일(9월 1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⑨ 정답은 <축성성유>입니다.

당첨자 : 이석희(요셉, 복자), 배영란(크리스티나, 화원), 김성희(요셉피나, 연일), 주외숙(세실리아, 무태), 정미향(세실리아, 수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9월 16일(월) 10:30 범어성당	구미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9월 16일(월) 19:00 신평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16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17일(화) 10:00 평화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9월 16일(월) 11:00 수성성당	행복한재활요양병원 노인사목 미사	9월 17일(화) 10:30 병원 6층
-	-	미바회 월례미사	9월 21일(토) 11:00 성도당

성소 | 피정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14차: 10.11(금)~13(일), 한티피정의집
 문의: 대구 ME, 983-0521
 교원들을 위한 에듀힐링 신청 환영

가르멜수도원 저녁 기도
 일시: 매월 첫 토요일 17:00
 (10.5. / 11.2. / 12.7.)
 장소: 수녀원 경당
 성소상담: (010)3375-4408

자연 in 베네딕도 수도생활체험학교
 일시: 9.27(금)~29(일), 2박3일
 장소: 대구 툇정포교베네딕도수녀회
 문의: (010)8519-3431 / 313-3431

교육 | 모집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10.4(금) 17:30~6(일)
 4박 5일: 9.23(월) 14:00~27(금)
 8박 9일: 10.14(월) 14:00~22(화)
 에니어그램: 10.5(토) 15:30~6(일)
 문의: (031)946-2337~8

609차 성령세미나(2박 3일)
 일시: 9.27(금) 13:30~29(일) 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
 신청비: 12만 원 / 교재비: 4천 원
 신청: (054)954-0951 / (010)4419-1220

가톨릭전통차연합회 회원 모집
 대구·경북의 차인이며 신자로서 같이 차 봉사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010)6716-5262 / 254-6631

가톨릭호출택시 사도회 회원 모집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인 택시도 가능)
 문의: (010)8566-8445 / 551-1004

예수성심 조이플 스테이
 기간: 10.5(토)~6(일) / 11.16(토)~17(일)
 대상: 모녀, 회비: 8만 원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2649-2045

2014 가톨릭상지대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가 운영하는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1차 모집: 9.4(수)~10.10(목)
 홈페이지: <http://www.csj.ac.kr>
 문의: 입시홍보처, (054)851-3021~2

제2회 가정성화를 위한 성체거동
도보순례(수원교구)
 일시: 10.27(일) 10:00
 장소: 어농성지~단대성가정성지
 미사: 단대성가정성지 15:00
 문의: (031)633-9531, 점심무료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11.15(금)~28(목), 13박 14일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모나코, 튀니지
 내측 508만 원, 오션뷰 538만 원
 발코니 568만 원(대한항공 이용)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살레시오 국제청소년자원봉사단 모집
 기간: 14.1.4(토)~17(금), 2주
 장소: 캄보디아 포이펫 돈보스코센터
 대상: 중3~대학생 및 20대 청년
 문의: (02)828-3524, www.ibosco.net

인천교구 실버타운(마리스텔라)
 2014년 3월, 총264세대
 1,000병상 인천국제성모병원 요양원 운영
 매일 미사, 다양한 신앙프로그램
 문의: (032)569-8500
<http://www.marisstella.or.kr>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 · 여드름 · 흉터 · 주름 · 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 566-4333

SM **수맥흠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 · 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승선역 2번 출구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성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 판 제(루카)
☎ 053-753-9795 수성구역 4번 출구 앞

성모발원 성지순례
 (스페인, 파타마, 루르드)-13일
출발일: 10월 30일, 11월 27일
 순례경비: 4,500,000원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코엘레(유스티노)

우리 아이 첫보약은 원방한의원에서
원 방 한 의 원
 前 대구가톨릭대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현(요셉)
☎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기약! 결혼
 미팅회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엘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름루트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

